

# ‘진화하는 보이스포싱’ 하루 피해액만 10억원

### 올해 상반기, 지난해해 피해액 200억원 초과 매일 116명·1인당 평균 8600만원 피해

올해 보이스포싱 피해액이 상반기만 에 지난 한해 피해액을 훌쩍 넘어섰다. 일평균 피해액이 1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포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에 달한다.

지난 8월말 기준 피해액은 263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지난해해 피해액의 200억원을 초과했을 정도로 올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피해액은 일평균 10억원에 달했다. 즉 하루 평균 116명이, 1인당 8600만원 가량 피해를 입은 셈이다.

보이스포싱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했다. 올 상반기 연령대별 피해액은 20·30대가 425억원, 40·50대 996

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포싱 피해금액 비중은 70.7%다. 주로 신규나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담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금액 비중도 29.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 및 40·50대 피해가 컸다.

성별 피해는 남성이 59.1%로 여성(40.9%)보다 18.2%포인트 많았다. 연

령대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67.2%로 전년래대 중 가장 컸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여성, 특히 고령층 피해가 컸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액이 363억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63억원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년 동기(35억원) 대비 4.7배 늘어난 수치다.

대포통장도 증가세다. 보이스포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올해 상반기 2만68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대포통장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포

통장 수가 9716건으로 전년 동기(6287건) 대비 54.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해준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면서 “보이스포싱이 의심되면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약 사기에 속아 현금이체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사에 직접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새내기 공무원 CEO와 차담회

전북지방우정청은 10일 우정청 7층 소회의실에서 2018.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초청, CEO와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우정가족으로 출발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도서를 증정, 꽃다발을 선물했고 공직생활을 응원 격려하는 등 새내기 공무원의 소감 및 포부 청취 등 CEO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행복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새내기 정년후 주무관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새내기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전북우체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들이 우체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으며 앞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출근하고 싶은 우체국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수출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을 포함한 전국 산업위기대응 9개 특별지역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9개 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지역으로 나뉜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수출준비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영역에 따라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의 기업은 ‘수출기업화’, 수출 10만불 ~ 100만불 미만의 기업은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한다.

또한, 선정 기업에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1년간 최대 3,000만원(정부지원금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가 지급된다.

특히, 선정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수출준비 인프라, 전략컨설팅, 수출관련 서류 대행, 해외시장조사, 국내

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및 이용 한 후 소요비용이 정산, 필요시 무역교육, 환위험 상품 등 필수 해외마케팅도 별도 추가 지원된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산소재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선정기업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이 선정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수출성공패키지 3차 모집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참여기업에게는 해외시장개척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군산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성희준 수출전문위원(☎ 063-210-6485)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

### 전북농협, 완주 봉동서 ‘행복버스’ 운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봉동농협(조합장 김운회),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은 지난 8일 완주 봉동초등학교에서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 ‘의료지원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문화예술공연’을 무료로 지원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가졌다.

이날 전북농협과 의료협약을 체결한 대자인병원 의료진은 행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내과, 심장혈관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치매검사, 우울증검사 등 25명의 의료진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의료봉사를 하여 농업인의 고질적인 농부병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경집(글라스스토리)은 어르신들의 눈검안 및 검안에 따른 맞춤 돌보기 지원도 이루어져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안호영 국회의원, 박성일 완주군수, 두세훈 도의원, 최등원 군의장 등 많은 내, 외



전북농협과 봉동농협, 대자인병원이 지난 8일 완주 봉동초등학교에서 농업인 500여명을 대상,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펼쳤다.

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동농협 조합원 한마음 큰잔치’도 열려 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김운회 봉동농협조합장은 “봉동농협 조합원 한마음 큰잔치에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이 실시되어 많은 농업인들이 의료지원, 검안

및 돌보기 지원, 문화공연까지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농협이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2030 농업인’ 우선 농지지원

### 일자리 창출·농촌 활력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세대에 대해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젊은 농

업인에게 농지매입, 임대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젊은 농업인이 쉽게 기반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관내 2030세대 2,331명에게 2,463ha를 지원, 올해 8월말까지 사업목표 1,820ha 중 350ha의 농지를 350명에게 지원해 농어촌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

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자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 3ha 이하,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농업계 고교 등)를 졸업한 분 중 만 44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 대상자로 선정되면 5

년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박종만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2030세대 농지지원은 고령화로 인해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청년의 농업, 농촌 조기정착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시켜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연중 신청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해당 시, 군 인근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영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